

##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 의식\*

전 재 강\*\*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사대부 시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황윤석 시조의 성격과 그 작품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논의했다. 사실을 제시하거나 교훈을 내리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황윤석 시조는 교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의 중심 내용은 군주의 격려, 군주의 생일과 忌日, 벼슬 제수 등 君恩 관련 사항과 선산의 풍수적 빼어남, 선조의 훌륭한 행적, 가문의 아름다운 전통, 작가의 출생지, 태몽 등 집안 관련 사항들로 되어 있다. 교훈의 중심 내용은 유교 학문의 목적, 성선설의 입장, 인간 심성의 특성, 심성 수양의 방법 등 심성 수양 관련 사항과 오륜, 부부유별, 남여유별 등 유교 실천 윤리 관련 사항들로 되어 있다.

황윤석은 시조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상승하려는 의식과 이념을 지향하는 의식을 표현했다.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이거나 治國이나 平天下의 준비를 갖춘 가문에 대한 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 지향적 의식을 드러냈고, 주로 유교 윤리의 철저한 실천이나 전통 성리학의 고수, 人物性同論의 주장으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데서 이념 지향 의식을 드러냈다.

정치·경제적 상승과 이념 지향적 작자 의식의 작용으로 작품은 교술적 성격을 상당 부분 가지게 되었고, 사실의 전달과 가르침의 제시라는 교술적 효과를 높이려는 과정에서 직설적 표현의 방법을 선택했다.

**핵심어** : 교술적 성격, 사실, 교훈, 작가의식, 상승지향, 이념지향, 향촌사립.

\* 이 논문은 제35차 한국시조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문화콘텐츠로서의 시조문학)에서 발표한 글을 재정리한 것임.

\*\* 동양대

## 1. 서론

사대부 작가와 작품에 관한 일련의 최근 연구 성과들은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는 평민 가객 중심의 장형시조만이 조선 후기 18, 19세기 시조 문학 현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차츰 확인해 주고 있다. 황윤석은 임란 후 130여 년이 지난 18세기를 살았던 전형적 향촌사림이었다. 임란 후 한 세기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농업 생산력이 회복되고 상공업의 새로운 발전으로 사회 계층의 변동 역시 앞 시대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다. 향촌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던 사족이 이 때에 이르면 국가와 지방관, 향리 계층에 그 권력을 내주고<sup>1)</sup> 생존의 새로운 길을 나름대로 모색해야 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많은 토지를 확보한 부농이 등장하고 역관이나 향리 출신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출현했으며 권력층에 진입한 사대부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란을 거치면서 경제적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한 중소 지주 규모의 사림들은 대부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게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자영농으로 전락해 갔다.

시조 문학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새로 등장한 신흥 부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평민 가객들의 시조가 나타나고 여유를 가진 사대부들의 풍류와 애정 관련 시조가 나타나며, 민생과 일치하는 삶을 노래한 시조, 전통을 고수하고 지키려는 일련의 시조<sup>2)</sup> 등이 또한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1) 金仁杰,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 「鄉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157-200쪽.

2)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 흐름은 그 시작과 종지의 시기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 실재했던 문학 조류였는데 황윤석은 전통을 고수하는 흐름에 속한 작가였다. 18세기 호남 지방이 비교적 풍류적인 시조 문학의 경향을

이재 황윤석은 18세기 호남 지역 사림 출신으로서 사회 경제적 변동의 시대인 18세기를 살면서 기존에 누렸던 재지 사림으로서 지위를 보존하면서 끊임없이 정치 경제적 상승을 추구했던 인물이다. 황윤석에 관해서는 역사학계나 국어학계, 과학계, 사상계 등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sup>3)</sup>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sup>4)</sup> 그의 문학적 업적은 산문, 한시, 시조, 시조 한역가가 그 대종을 이루는데 산

---

보인 면이 있었으나 황윤석은 그가 처한 현실과 개인적 성향으로 이런 흐름과 달리 보수적 입장을 고수했다.

- 3) 먼저 어학에 관한 일부 연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녕, “황윤석의 『이수신편』의 고찰-특히 어학 연구를 중심으로” 『도남 조운제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동간행위원회, 1964  
 박태권, “황윤석의 어학설에 대하여” 『국어학사논고』 샘문화사  
 유재영, “이조 후기 국어학에 공헌한 실학사상” 『논문집』 5, 원광대학교, 1970  
 김석득, “이재 황윤석의 화음방언자의해” 『동방학지』 40집, 연세대 국학연구소, 1983  
 강신항, “실학 시대학자들의 업적에 대하여-이사질과 황윤석” 『교육논총』 창간호, 성균관대, 1986  
 최전승, “이재 황윤석의 「화음방언자의해」와 「이수신편」 등에 반영된 어휘 연구의 성격” 『이재 황윤석-영·정 시대의 호남 실학』(최삼룡 외 4인 저) 민음사, 1994.  
 \* 과학에 관한 일부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일성 외, “황윤석의 항성황적경위표에 대한 검토” 『동방학지』 19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8.  
 하성래, “이재 황윤석의 서양과학사상 수용-담헌 홍대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제1집, 명지대 전통문화연구소, 1983  
 정성희, “이재 황윤석의 과학사상” 『청계사학』 제9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92.  
 4) 유재영, “이재 황윤석의 목주잡가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7집, 한국언어학회, 1970, 5  
 유재영, “이재의 타어부에 대한 고찰” 『향토문화연구』 제5집,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89  
 최강현, “황윤석론” 『속·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편, 백산출판사, 1990  
 최삼룡, “이재 황윤석의 문학 연구” 『이재 황윤석-영·정시대의 호남 실학』(최삼룡 외 4인 저), 민음사, 1994.  
 김명순, “황윤석의 시조 한역의 성격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13집 1997, 8

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한시와 시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생 동안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저술을 남긴 황윤석은 소위 박물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sup>5)</sup> 자연 과학, 천문학, 상수학, 성리학, 수학, 언어학, 문학 등 그의 관심 분야는 참으로 넓고 다양했다. 본고에서는 그의 다양한 행적으로 보아 매우 다면적인 면모를 가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황윤석 시조 문학이 가진 성격과 작가 의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의 창작 시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의 한시나, 그 당대 혹은 그 선후대의 작가, 작품 과도 대비하여 작품의 성격과 작가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sup>6)</sup> 연구 기본 자료로는 황윤석이 남긴 『이재난고』, 『이재유고』, 『이재속고』를 주로 사용하면서 관련되는 다른 작가의 문집, 시조집을 참고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결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성격을 먼저 살피고 이러한 성격의 작품이 산출된 근거로서 작가 의식을 작품 내·외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5) 김기현, “이재 황윤석의 학문체계 분석” 『이재 황윤석-영·정 시대의 호남 실학』(최삼룡 외 4인 저) 민음사, 1994. 참조.

6) 황윤석은 19-20세의 청년 시절에 ‘古歌新編二十九章並序’와 ‘古歌新編二十九章續十四章’이라는 제목 아래 42수의 시조를 한역하였다. 한역 이유를 시조가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효용성, 사람을 놀라게 하는 훌륭한 작품성을 동시에 가졌으나 기록되지 않아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역한 작품은 유교적인 작품과 함께 행락, 취락, 사랑, 이별, 인생 경험 등 다양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고착되기 이전 청년 황윤석이 가졌던 여유와 풍류적 성향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순, ‘앞의 논문’ 참조).

## 2. 교술적 성격

시조는 향가나 고려 속요와 같이 서정 갈래로 분류된다. 교술 갈래로 분류된 장르 역시 서정적인 성격을 가졌듯이 서정 갈래로 간주되는 시조 역시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교술적 성격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조선시대 전체를 통하여 강조된 유교 윤리의 계몽을 위한 일련의 훈민 시조들<sup>7)</sup>은 이러한 성격을 보이는 작품의 대표적 예가 되고 있다. 황윤석이 남긴 시조 작품<sup>8)</sup>은 가문을 자랑하나, 군은을 칭송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소개하거나 유교적 교훈을 내림으로써 교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sup>9)</sup>

- 
- 7) 16세기에 연시조 형태로 창작되기 시작한 훈민 시조는 방식을 달리 하면서 19세기까지 창작되었다. 훈민시조 유형의 작품들은 국가 윤리, 향촌사회 윤리, 가정 윤리 등을 역사적 변화를 보이면서 노래했다. 연시조에서 개별 평시조로, 사대부 시조의 관념적 경향에 평민 가객에 의하여 풍류적 성향이 작품에 더해지기도 했으나 유교 덕목의 교시라는 교술적 근본 성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졸고, 『어문학』 제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3)” 참조)
  - 8) 황윤석 시조의 성격을 교술적이라고 한 것은 그 시조의 성격이 교술적이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주로 서정의 근거로서 제시한 초·중장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나 이념으로 되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장에서도 공리적 교시를 내세우고 있어서 여타 작가의 서정적이기만 작품과 뚜렷이 변별된다는 말이다.
  - 9) 황윤석이 교술적 시조 문학은 남기고 장르 성격상 교술 갈래로 분류되는 가사를 짓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는가? 작품 내적으로 보면 시조에서 보인 교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매우 이질적이고 시차를 가진 사실들로 되어 있어서 한 두 작품의 가사로 일괄하여 묶어내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작품 외적으로 황윤석은 열 살부터 임종 직전까지 세세한 사실들을 일기로 기록하고 있어서 일련의 객관 사실들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 사실

황윤석 시조 전체 28수<sup>10)</sup> 가운데 사실에 관련한 작품들은 군은과 관련된 일곱 수의 작품과 가문을 소개한 여섯 수의 작품을 들어 볼 수 있다. 관련된 일부 작품의 해당 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 先王恩澤은 萬萬世 傳히시리 (목주 28-1, 중장)
- (2) 年年九月 열 사흔날 年年 三月初닷샌날 (목주 28-2, 초장)
- (3) 두어라 우리님 聖明이옵시니 태평만세 비옵노라 (목조 28-3, 종장)
- (4) 君恩이 罔極히와 白髮의 木川오니 (목주 28-5, 초장)
- (5) 阿爺님 놀 브리고 阿麼님 내 뵈오려 (목주 28-6, 초장)

(1)의 선왕은 황윤석을 늦게 만난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던 영조 임금의 말하고<sup>11)</sup> (2)의 ‘年年九月 열 사흔날’은 영조 임금의 생일이며 ‘年年 三月初닷샌날’은 영조 임금의 忌日이다. (3)의 聖明은 자기를 등용해 준 정조를 말한다. (4)는 황윤석이 늦게 목천의 현감을 제수 받아 부임하게 된 상황을 노래한 것이고 (5)는 영조 47(1771)년에 황윤석의 선친이 작고한 사실을 두고 읊은 것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고 은혜를 내린 임금을 잊기 어렵

- 
- 10) 황윤석은 본래 『頤齋亂稿』에 28수의 시조를 수록했는데 1947년 편찬된 『頤齋續稿』에는 21수만이 실리고 나머지 7수가 刪削되었다(“頤齋 黃胤錫의 木州雜歌에 대한 考察(유재영, 『한국언어문학』 제7집, 한국언어문화회 1970)”, “이재 황윤석의 문학연구(최삼룡, 『이재 황윤석-영·정시대의 호남실학』 민음사, 1994)” 참고). 산삭된 작품을 살펴보면 군은 3수, 집안 현실 3수, 이념 1수로 되어 있는데 군주에 대한 강한 지향, 어려운 집안 형편, 인물성동론을 각각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외된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선비로서 지나친 상승 지향적 태도나 어려운 삶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던 그 후손들의 입장이 작품 산삭에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다.
  - 11) 황윤석 시조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 관련 내용은 이하 “황윤석론(최강현, 『앞의 책』)”을 참고했다.

다거나(1),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평생동안 갚겠다(2)고 다짐하기도 하고, 은혜를 내려준 임금의 太平萬歲를 기원하기도 했다(3). 또한 목 천 현감으로 부임하여 가숙을 만나거나 자친을 생각하게 된 상황을 노래하고(4), 엄친은 잃었지만 자친을 모시며 薄邑을 다스려 임금과 엄친의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5).

예로 제시한 작품의 내용이 작가 주변에 일어난 사실로 되어 있고 작품 전체적으로는 임금의 은혜를 갚거나 부모에 효도를 다하는, 다시 말하자면 당대 보편적 가치인 충효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황윤석 시조가 보이는 교술의 성격이 이와 같이 사실의 개진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그러한 사실을 두고 작가가 보인 충의의 태도도 새로운 가치의 표현이 아니라 관습화된 가치의 추종이나 선전라는 점에서 작품은 교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의 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보인 사실이 황윤석 개인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다음에 보이는 내용은 황윤석을 중심으로 한 황씨 집안 선대의 자랑스런 사실로 되어 있다.

- (6) 南來先墓 桃李所여 王輪山도 멋히런고  
象頭山 東南의 더욱 조타 龍頭 | 러라 (목주 28-11, 초중장)
- (7) 兪正先祖 舊墓舊고 烈女傍親旌門 마조 (목주 28-12, 중장)
- (8) 그 중의 우리집 三世遺躅 어이 춤아 니줄소니 (목주 28-13, 종장)
- (9) 龍頭先山 十里西南 太山古懸 第三里라  
黃榜山下 龍溪물의 慈親夢中 헉 비취네 (목주 28-14, 초중장)
- (10) 文章도 繼繼홀샤 行誼도 承承홀샤 (목주 28-15, 초장)
- (11) 넷 聖人 頤卦大象이니 우리 先訓 더욱 조타 (목주 28-16, 종장)

(6)에 보이는 桃李所는 황윤석 8대조 묘소이며 王輪山은 7대조 묘소, 龍頭는 조부의 묘소이다. (7)에서는 집안 방계 선조의 자랑거리를 소개했고 (8)은 생략된 초장과 중장에서 그 지역의 풍수적 형세를 소개하고

여기에서 '우리집 三世遺蹟'을 잊지 않겠다고 하여 가문의 역사를 제시했다. (9)는 황윤석 자신이 태어난 외가를 초장에서 소개하고 중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꿈 태몽을 소개하고 있다. (10)에서는 자기 집안 내력을 총정리하고 (11)에서는 선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읊고 있다.

여기서 살핀 전체적인 내용은 황윤석 가문과 행적, 자기 집안과 자신의 출생, 그 자신의 각오와 관련된 내용이다. 황윤석은 8대조부터 자기 집안 선조의 선산을 차례로 소개하고 집안의 열녀 행적, 문장 계승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외가의 지리와 태몽을 매우 인상 깊게 소개했다. 이상의 내용을 총괄하면 높은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문장을 전통으로 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선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자기가 계승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즉 충효 정신과 집안 내력에 대한 자부심이나 계승의 의지를 드러내는 근거로 군은과 집안과 관계된 사실을 읊었다.

## 2) 교훈

황윤석은 윤리와 교훈에 대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스스로의 심성수양과 관련된 교훈과 구체적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 항목에 대하여 노래했다.

- (12) 虛靈호은 이내 本心 純善호은 이내 본성/本心은 聖凡이 한 가지오 本性은 人物이 한 가지라/엇지타 本心性汨失하여 至愚極賤되을소냐 (목주 28-17)
- (13) 天地도 廣大호다 내마음 又치 廣大/日月도 光明호다 내마음 又치 光明/眞實로 내마음 天地日月 又게호면 堯舜同歸호오리라 (목주 28-18)
- (14) 靈明不測 이내마음 出入無時 이내마음/毫釐間千里萬里오 須臾間 千古萬古 | 러라/아마도 輕輕히 照管호고 略略히 存在호여 敬字넛지 마오려니 (목주 28-19)



- (15) 띠이 쥐면 밭아지리 아니쥐면 드라나리/勿忘勿助 地境의 이내 마음 삼가슬퍼(\*존성하여, '목주속고')/죽도록 蹈虎履氷이오 臨淵隕谷이오리라 (목주 28-20)
- (16) 人生이 有慾하야 寒暖飢飽 맞고 無限/淫聲도 저푸오나 亂色도 더욱 저뛰/조금 곳 本心일스오면 사롭 아녀 禽獸ㅣ러라 (목주 28-23)
- (17) 禽獸웃 아니되면 夷狄도 되지말고/下愚로 上智턱워 堯舜周孔濂洛關關 되어보소/두어라 層層階梯에 머다한달 언마 머물손가 (목주 28-26)

(12)의 초장에서는 인간의 본심과 본성에 대한 원시유학과 성리학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본성이 순선하다고 한 것은 맹자의 성선설에서 가져왔고 마음이 虛靈하다는 말은 성리학자들의 상식에서 가져온 말이다. 그리고 중장에서 보인 聖인과 凡人이 한 가지고 人과 物이 한 가지라는 말은 황윤석이 그의 스승 김원행으로부터 배운 人物性同論의 입장<sup>12)</sup>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人物의 本性은 古今과 中外에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른 작품에서도 강조했다.<sup>13)</sup> (13)에서는 유교의 학문 목표가 자기를 닦아 남을 다스리는 것[修己治人], 다시 말하자면 인을 체득하여 천하를 덕으로 다스리는 성인이 되는데[求仁作聖]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14)에서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다. 시간과 공간에 걸리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을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이고 있다. (15)는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잊어버리지도 말고 助長하여 생명을 죽이지도 말라는 孟자의 심성 수양 방법<sup>14)</sup>을 소개한 것이다.

- 12) 황윤석은 스승 김원행에게 人物性同異論에 대하여 질의하고 人物性異論의 제창자인 韓元震을 비난했는데 조선의 유교 학통을 '율곡(이이)→사계(김장생)→우암(송시열)→농암(김창협)→도암(李緯)→미호(김원행)→이재(황윤석)'로 인식하여 인물성동론이라는 스승의 학설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이재 황윤석의 학문체계 분석(김기현)" 참고).
- 13) "末世人物이라 혼들 上古人物 다룰 년가/偏邦人物이라 혼들 中國人物 다룰 년가/으뜸어 天生人物 라 古今中外분간 말게(목주28-27)"에서 황윤석은 古과 今, 중국과 변방의 인물에도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16)은 인간과 금수가 비록 본성에서는 같지만 본심을 잊어버리면 짐승이 된다고 하여 유교 가르침을 따라 심성을 수양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17)에서는 다시한번 요순을 비롯한 여러 유교 성인을 제시하고 이들과 같은 성인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컨대 (12)에서는 성리학적 입장을 전제로 본심과 본성을 잃지 말 것을 가르치고 (13)에서는 성인이 되는 유교의 목표에 나갈 것을 권하였고 (14)마음의 특성을 말하고 나서 敬이라는 성리학적 마음 다스리기를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 (15)는 경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망각하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는 勿忘勿助의 마음 수양 방법을 제시하였다. (16)은 이러한 유교의 마음 수양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욕망을 따르기만 하면 금수가 된다고 하여 앞에서 차례대로 제시한 가르침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였다. (17)에서 학문의 목적을 想起시켜 유교적 가르침에 누구나 나아갈 것을 한 번 더 강조했다.

황윤석은 원시 유교와 성리학에 나타난 인격 수양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유교가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 유교 윤리인 오류를 교시했다.<sup>15)</sup>

(18) 君臣은 大義이고 父子는 至親이며/長幼有序의 兄弟들고 朋友有信의 師生드네/아마도 夫婦一倫은 五倫之本이라 엇디無別호을소냐 (목주 28-21)

- 
- 14) 맹자는 “반드시 일할 때 미리 기약하지 말아야 하니 마음에 잊어버리지도 말며 助長하지도 말아서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孟子』公孫丑上)”고 하면서 송나라 사람이 빨리 자라게 하려고 이삭을 뽑아 올려서 도리어 생명을 죽인 예를 들어 심성수양에 勿忘勿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15) 유교의 가장 기본적 윤리 덕목인 五倫은 『小學』(立教章)의 중심 내용이다. '7세가 되면 남녀가 함께 앉지 않는다(七歲男女不同席)'거나 '편안히 살면서 (五倫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깝다(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라고 한 것도 여기에 나온다.

- (19) 七歲孫男을 祖母도 안을소나 七歲孫女를 祖父도 안을소나/七歲男女不同席은 兄弟姊妹 예도 닛지 말게/아모리 夫婦間至親至密이나 爲先有別히여세라 (목주 28-22)
- (20) 이 내 몸이 天地間의 禽獸와 다르기는/倫紀禮節 제 모르고 이 能히 아롬이니/엇지타 天地에 參爲三才히여 禽獸同歸히올쇼나 (목주 28-25)

(18)에서는 오류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는데 증장에서 형제와 사생의 관계가 각각 長幼有序와 朋友有信의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증장에 오면 夫婦有別의 항목이 오류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19) 역시 부부 관계와 같은 선상에서 남녀 관계를 중시하고 형제자매 사이에도 분별의 도리를 잊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20)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오류의 중요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전통적 유교 경전의 입장을 가져와서 강조했다.

황윤석은 오류이라는 기존 유교 덕목의 중요성을 전통 유교적인 관점에서 반복하고 남녀간의 관계인 夫婦有別의 항목을 특별히 강조했다. 성리학적 가르침을 제시하거나 윤리항목을 나타낸 작품에서도 한결 같이 유교적 가르침이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사실의 전달이나 교훈의 제시가 작품 내용의 중심을 이루으로써 황윤석 시조는 모든 작품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 부분 교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시조의 본질적 특성상 사실과 교훈을 표현하는 중간에 작가의 지향이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작가의 심층적 의식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를 남기고 있다.

사실과 교훈이라는 교술적 성격은 그 시조 표현 현상에도 일정한 특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황윤석은 이이로부터 김장생, 송시열, 김창협으로 이어지는 기호사림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스스로 서술했다.<sup>16)</sup> 평소 산문 기록이나 시를 통하여 특히 이이나 송시열에 대한 존

16) 황윤석은 “記湖洛二學始末”에서 “우암 송 문정공 선생이 율곡과 사계를 계승

경심을 많이 표현해 왔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같은 학맥의 가장 선두 인물인 이이의 작품과는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이이는 高山九曲歌에서 그가 견지한 이기이원론적 주기론의 입장을 작품의 표면에 그대로 직설하지 않았다. 자연의 대상이나 인간의 삶을 통하여 형상화라는 문학적 표현을 거침으로써 인간과 자연, 관념이 아주 조화된 아름다운 시조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sup>17)</sup> 이러한 전통은 이현보와 이황과 같은 영남 사람에서 이른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학과 사상의 관계가 이들의 작품에서는 전혀 자취 없이 융화되어 이념의 형상화라는 아름답고 새로운 시조의 경지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황윤석은 임금을 향한 충성이나 오류이라는 유교 덕목, 나아가 자기가 추종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형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서정을 통한 정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교훈을 분명하게 드러내 교시적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그의 시조는 문학적 형상화를 통한 정서적 감동보다는 사실의 전달이나 직접적 교시를 통한 이성적이고 지적 인식의 효과에 더 크게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 이래로 주자학이 동방에 크게 밝아졌다”고 하면서 우암의 학맥이 김창협, 李緯, 김원행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 17) 이황은 주리적 이기론의 진리를 깨닫고 천인합일의 경지를 ‘陶山十二曲’이라는 시조로, 이이는 이기묘적 주기론의 입장을 ‘高山九曲歌’라는 시조로 각각 읊었다. 이들 작품은 유교 이념과 인간 정서의 세계를 인간과 자연 현상의 조화로 온 형상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서경시, 서정시, 관념시적 이해를 모두 가능하게 할 정도로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준다(“도산십이곡의 이기론적 근거와 내적 질서 연구(줄고, 『어문학』 제70집, 한국어문학회, 2000.6)”, “고산구곡가의 충담소산과 이기묘적·주성적 성격(줄고, 『안동어문학』 제6집, 안동어문학회, 2001.11)” 참조)

### 3. 작가 의식

황윤석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임금에 감사하고 가문을 자랑하며 스스로 교훈을 제시하거나 당시 보편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시조에 특징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보인 특징적 의식은 그가 처했던 당시 정치 경제적 현실과 구체적 가문의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 1) 상승 지향

황윤석은 군은이나 가문과 관련된 사실을 노래했는데 먼저 그가 군은에 대하여 노래한 일곱 수의 시조 작품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다. 江湖四時歌에서 맹사성이 강호의 자연 생활을 군은으로 보고 감사했던 경우<sup>18)</sup>와는 군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보답하려는 태도가 다르다. 즉 황윤석에게는 임금의 관심, 벼슬 제수 등 현실 참여 기회 제공이 군은의 구체적 내용이었다. 군은에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맹사성은 강호 자연의 생활을 두고 ‘亦君恩이셨다’라고 하여 여유 있는 풍류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황윤석은 다음 작품에 보이듯이 ‘죽도록 갚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정치적 상승 지향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이 강호생활에로의 은퇴가 아니라 정치 현실에의 적극적 참여이기 때문이다.

(21) 우리 先王 恩澤은 萬萬歲 傳히시리/아마도 혼낫 賤身이 혼자 닳기 어

18) 江湖四時歌에서 맹사성은 致仕閑客의 여유이든 관직생활의 여가 활동이든 강호자연 속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어서 정치적 현실에의 참여를 군은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황윤석의 경우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려웨라 (목주28-1, 중중장)

(22) 어좁어 百年 限호여 죽도록 갑소오리 (목주28-2, 중장)

(23) 밥술도 님 恩惠오 뵈올도 님 恩惠니/家屬親戚들이 님 恩惠 아라시렴  
(목주28-4, 초중장)

(24) 君恩이 罔極호와 白髮의 木川오니 (목주28-5, 초장)

목천 현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들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에 황윤석이 군은에 감사하는 것은 致仕閑客이 노년의 여유를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현실 참여 기회를 부여한 임금에 대한 깊은 충성의 표현은 현실 정치에서 뜻을 펴고자 한 황윤석의 상승 지향 의식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백발이 된 늘그막에 목천에 부임한 것을 두고 (24)에서는 군은이 망극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임금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22)에서는 죽도록 갚아야 한다고 읊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에서는 ‘밥술’과 ‘뵈올’까지도 군은이니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21)에서 황윤석은 자신을 알아주었던 임금의 은혜는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진출 관련 君恩에 감읍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 작가는 강호자연 관련 생활에 감사하는 시조 작가와 비교하여 현실 참여에 가치를 부여하고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현실에서의 상승을 자연스럽게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상승 지향 의식은 구체적 현실에서나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이 된다.

황윤석은 10여 년 동안 벼슬에 나갔지만 내직과 외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6품 이하의 낮은 벼슬을 전전해야 했다.<sup>19)</sup> 그는 대과에 급제하지도 못했으며 당시 중앙 무대에 고관의 연출도 갖지 못한 처지였기 때문에 임금과 직접 대면하여 발탁되는 길밖에 다른 출세의 길이 없었던 것

19) 하우봉, “이재 황윤석의 사회사상” 『이재 황윤석-영·정 시대의 호남 실학』(최삼룡 외4인 저) 민음사, 1994, 18쪽

으로 생각된다. 추천으로 벼슬에 나가고 임금의 칭찬을 듣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높이 등용되지 못했다. 비록 아버지의 뜻 때문이라고는 했으나 오래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벼슬길에 나아가려했던 그의 강한 지향을 읽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한시 작품에 이러한 사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25) 내 어찌 평생 高踏의인 사람이라 하겠는가?	吾豈平生高踏人
벼슬 위해 과거 보고 친한 사람 연줄을 다했네	爲官求舉摠緣親
흰 머리는 이미 魔鬼의 회롱거리가 되었는데	白頭已是魔相戲
넘어져 병든 이 한 몸은 어찌할 수 없네	無奈蹉跎一病身 <sup>20)</sup>

비록 가친의 지시와 효도를 위해서 과거를 보고 사회 진출을 도모했다고는 하나 위의 작품을 보면 이유가 무엇이든 그가 얼마나 정치적 상승을 위하여 勞心焦思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황윤석의 바로 앞 시대 이기는 하지만 박인로나 강복중이 보인 태도와 닮은 점이 발견된다. 박인로는 조라포 만호라는 하급 무인으로서 전란 후에 유교적 수학을 통하여 명실상부하게 사림에 편입되어 신분적 상승을 추구했던 인물이고<sup>21)</sup> 강복중 역시 자기 가문을 지키고 사회 진출을 지향했던 인물이다.<sup>22)</sup> 신분적 상승을 지향하는 인물들은 한결 같이 군왕에 대한 충성을 적극적으로 맹세하고 봉건질서의 핵심 이념인 유교 덕목에 대한 강한

20) '漫書四首' 『頤齋續稿』 卷2

21) “박인로 문학세계의 현실적 토대와 세계 인식(서종문,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한길사, 1987)”과 “노계 <오륜가>의 당위적 지향과 현실적 표현 양상(졸고, 『문학과 언어』 제10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9)”,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졸고, 『어문학』 제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참조.

22) 강복중은 60여 수가 넘는 시조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그 역시 향촌 사림 출신으로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문을 보존하는 일에 몰두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계해반정가'를 지어 반정 당사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 점 등에서 상승지향적 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박을수, “강복중론”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참조)

지향을 보이기 일쑤였다.

가문을 소개하면서 형성된 작품의 교술적 성격 역시 이러한 그의 상승지향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에서는 자신의 선대 선산이 '조타'고 하여 터전을 제시하고 (7)에서는 그러한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 훌륭한 덕행을 내보이고 (7)의 종장에서는 선조를 제대로 추모하면 효자효손이 이어질 것임을 예언하였다. (8)에서 '三世遺躅'을 잊지 말아야 하며 (10)에서 文章과 行誼를 계승해온 집안이기 때문에 '科宦이 굶다흔들 우리 五世 늘 불을가'<sup>23)</sup>라 하여 비록 벼슬이 끊어져도 조상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11)에서 이러한 가문의 전통 속에서 선조가 남긴 頤卦 大象의 家訓이 더욱 좋다고 자랑하였다.

그가 자랑한 가문의 내용을 보면 대대로 문장과 의행을 계승해 왔다는 것, 선대에 훌륭한 덕행이 있었다는 것, 頤卦 大象의 家訓을 계승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가문이 가진 역대 이러한 면모를 그가 주로 읊은 것은 『大學』에서 말하는 8조목 가운데 修身과 齊家の 요건을 두루 갖추어 治人の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구비했다는 주장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집안 대대로 학문 수련의 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치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가문을 자랑한 작품 표현의 이면에는 유교적 학문 목적과 그 목적의 전개 과정에 비추어 당위론적으로 치인을 위해 사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황윤석의 의식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당위론적 이유에 더하여 그는 정치적으로 상승해야 할 더 현실적인 절박감을 가지고 살았다. 위에 인용한 한시에 나타난 절실한 상승 지향에는 중소 토지 소유의 한미한 재지 사립으로서 직

23) 해당 작품의 종장.



면했던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한 작가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 (26) 못아들 쫓 혼 애오 못쫓 婚期 늦게 되나/十八歲少자와 十一歲少女는  
    阿米업시 어이려뇨/슬푸다 先人餘慶 계옵시니 너희 壽福벼라노라(목  
    주 28-9)
- (27) 백발의 소실보니 琴瑟舊情 더욱 싫다/時時로 생각하면 二十九年 어제  
    런듯/아마도 새오네오 天數 | 오니 설움즐김 무엇허리(목주28-10)

(26)에는 아내를 잃은 상황에서 맏딸의 혼기가 늦어지고 어린 아들과 딸을 부양하기도 힘든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현실적 능력이 부족한 작가로서 다만 선조의 蔭德을 기원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는 슬픈 심정을 종장에서 노래했다. (27)에서 보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후처를 들이기는 했지만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하여 오히려 옛날을 더 그리고 서러운 것으로 노래하고 종장에서는 '서러움과 즐거움' 자체를 잊고 초월하는 데까지 이르고자 했다.

자녀를 부양하고 혼인을 지내는 일, 아내를 잃고 후처를 얻고서도 여유를 가질 수 없어 기쁨과 괴로움 자체를 망각하려 할 정도로 작가는 현실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친을 먼저 보내고 모친을 모시면서 집안을 건사하는 일이 작가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교 학문의 목적상 그가 처한 가문의 전통에서 당위론적으로 정치 현실에 진출하여 활동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 이면에 그가 겪었던 경제적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정치적 상승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교술적 표현을 통하여 균은이나 가문을 표현한 작품 이면에는 사회 정치적 상승을 통하여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지 사림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었다. 중앙 정치 무대에 확고한 인맥을 갖지 못하여 임금의 직접적

발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칭송을 하게 되었고 유교적 전통에 가장 어울리는 모범적 가문의 전통을 자랑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우월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정치에 참여하여 치인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2) 이념 지향

황윤석은 재지사림으로서 중소토지소유라는 경제적 기반과 하급 관리라는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 유교 이념을 추구했다. 그가 남긴 28수의 시조 작품에서 20여 수가 넘는 작품에서 이념 지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향성은 그가 지향하는 이념의 내용과 함께 당대 같은 호남 지방의 실학자이면서 시조를 남긴 위백규라는 인물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sup>24)</sup> 위백규가 황윤석과 같은 한미(寒微)해져가는 재지사림으로서 마침내 농사에 직접 종사하면서 목가적 감상자가 아닌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노래한 것이 특히 대조를 이룬다. 황윤석은 한 작품에서도 이와 같이 사회 개혁이라든지 농민 현실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내지 않았다. 그가 지향한 이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오류이라는 유교 기존 윤리 덕목이고 다른 하나는 성리학 이념이다. 오류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은 時調史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나 자기가 추구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시조 작품으로 직접 읊은 것은 황윤석의 경우가 매우 이례적

24) 위백규는 황윤석이 살았던 전라남도 고창군과 멀지 않은 장흥에 세거했는데 30대 후반까지 성리학을 탐구하고 과거에 응시했으나 40대가 되어서는 과거를 버리고 귀농하여 실제 농사를 지으며 독서를 하는 躬耕讀書의 생활을 했으며 탈성리학적 성향을 보이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시조작품을 짓기도 했다.(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2 참조)

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이념을 담은 작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 성리학의 심성 수양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物이 근본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人物性同論의 자기 학설이다. 심성 수양 방법은 성리학 전통의 방법을 따르면서도 그의 특징적 성리학설인 인물성동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의 예문에서 먼저 (12), (16), (17)의 세 작품은 황윤석의 인물성동론의 입장을 담고 있다. (12)에서 작가는 성인과 범인, 사람과 대상을 한 가지로 보아 인물성동론적 입장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16)에서 사람과 物이 가진 본성과 본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읊었다. 인간은 寒暖飢飽의 욕심 이외에 淫聲, 亂色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本心을 잃지 않도록 해서 禽獸와 다른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을 경계하여 가르쳤다. (17)은 본심이나 본성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같지만 본심과 본성을 잃게 되면 지극히 어리석고 천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면서 허명한 본심과 순전한 본성을 회복하여 요순과 주공, 공자, 주렴계, 정자, 주자 등과 같은 聖賢과 같게 될 것을 권고하였다. 누구나 성현에 이를 수 있다는 표현은 인간과 인간 사이는 물론 사람과 대상 사이에도 본심과 본성에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인물성동론적 그의 성리학설에 근거했다.

다음은 (13), (14), (15)에서는 본심과 본성의 차원에서 일체가 같다는 전제 아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현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전통 성리학적 심성 수양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3)에서 보면 광대한 천지, 광명한 일월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광대하고 광명하게 하면 유교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물인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작품이 단순히 성인이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면 (14)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황운석은 마음의 성격을 靈明不測하고 出入無時한 것으로 규정했다. 마음은 신령하고 밝아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본성 때문에 작용할 때에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때가 없어서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증장에서는 마음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무한 거리를 가고 오는 작용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증장에서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조관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이다. '輕輕히 照管'한다는 것은 마음이 작용할 때 그 작용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하고 '略略히 存在'한다는 것은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황운석이 말하는 심성을 연마하는 방법이고 敬의 방법이다.<sup>25)</sup> 바로 이러한 성리학 전통적 심성수양 방법으로서의 경에 대한 관심을 이 작품에서 황운석 역시 보이고 있는 것이다.

(14)가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읊었다면 (15)는 초장과 증장에서 마음의 특성을 말하고 증장에 오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 읊고 있다. 호랑이를 밟고 얽은 얼음을 밟는 것[踏虎履冰]과 같이 하고, 깊은 연못에 다가가 서고 깊은 계곡에 떨어지는[臨淵隕谷] 것과 같이 행동을 조심하여

25) 성리학에서는 진덕수가 『心經』을 편집한 이래 정민정의 『心經附註』가 있고 한국에 와서는 이황이 '心經後論'을 쓴 이후 鄭述가 『心經發揮』를 다시 편집하였다. 『心經』에 대하여 이황이 관심을 보인 이후 이 책에 대하여 조선 성리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心經』의 조선적 정착을 알리는 『心經發揮』에는 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추가 되어 있는데 황운석도 그가 남긴 '自省箴'이나 '客中題壁三箴' 등의 글이나 그의 독서 목록에 『心經』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성리학적 심성수양 방법인 敬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황운석이 절대적으로 존경해마지 않았던 朱子의 "반드시 특별하게 고요히 앉아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하나의 敬字를 잡아서 動靜을 貫通하면 둘 사이에 저절로 間斷이 없게 된다(不必特地將靜坐做一件工夫. 但著一敬字通貫動靜則於二者之間自無間斷處. 鄭述 『心經發揮』一卷 敬以直內章參考)"는 말과 일치한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심성을 연마해 나가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는 일생동안 궁구했던 성리학적 세계관은 물론이고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오류이라는 유교 덕목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앞에서 제시한 (18)에서는 오류 전체에 대하여 노래하고 (19)(20)에서는 오류 가운데서도 夫婦有別을 확대한 男女有別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 덕목을 지킬 것을 매우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이 소설을 통하여 억압 받은 여성의 입장을 표현한 것<sup>26)</sup>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고관에 올랐던 이정보나 이세보와 같은 시조 작가들이 작품에서 남녀 애정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경우와도<sup>27)</sup> 좋은 대조를 보인다. 가학과 학문적 사승관계에서 보수성을 가지게 되었고, 지위 높은 사대부나 유한층 인사들이 여유와 풍류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유흥과는 거리가 먼 삶을

26) 박지원이 '열녀합양박씨전'에서 억압된 여성의 현실을 과부의 밀폐된 삶의 고뇌를 통하여 서사화한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의 앞뒤에서 전통적 여성관을 추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 수호의 표면적 장치를 통하여 정욕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역으로 옹호했다. 박지원은 작품에서 "대개 사람 혈기는 음양에 근거하고 정욕은 혈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념은 간히고 고독한 데서 나오고 상심과 슬픔은 상념에서 나온다. 寡婦는 간히고 고독한 곳에 있어 상심과 슬픔이 지극한 사람이다(大抵人之血氣 根於陰陽 情欲鍾於血氣 思想生於幽獨 傷悲因於思想 寡婦者 幽獨之處而傷悲之至也, 朴趾源, '烈女咸陽朴氏傳' 『燕巖集』卷之一, 傳)"라고 하였다. 인간의 정욕(A)은 혈기(B)에 뿌리하고 혈기는 음양(C)에 근거한다는 박지원의 주장을 따라가면 정욕(A)이 음양(C)이라는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존재원리인 음양을 부정할 수 없듯이 음양에 근거한 정욕의 현실성을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여성 옹호적 작품 주제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27)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정보는 고관을 역임했는데 강호한정이나 연군 등 전통적 주제의 작품은 물론 애정, 사회 현실, 농촌생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노래했고(구수영, "이정보론" 『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편, 백산출판사, 1986 참조), 19세기 이세보는 충효나 훈민의 내용을 노래함과 동시에 애정이나 기생을 노래하는 풍류적 작품을 많이 남겼던 것(진동혁, "이세보 시조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81, 吳鍾珩,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참조)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살았던 황윤석의 성향과 입장이 이 이러한 작품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보다 더 낮은 사회 경제적 위치에 놓였던 조항은 황윤석보다 한 세기 후대 인물이었으나 완고한 유교 보수적 삶을 살며 보수 성향의 시조를 남겼다.<sup>28)</sup> 전통적 유교 이념에 더욱 몰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견지하거나 극복하고자 했던 의도,<sup>29)</sup>가 이러한 작품 창작의 이면에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황윤석의 시조가 보인 교술적 성격은 바로 이러한 신분적 상승과 유교나 성리학이라는 이념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 4.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그 시조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필요한 경우 다른 작가와 대비하면서 논의해 보았다.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황윤석은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는 상당

28) 황윤석의 학문적 성향은 家學, 師承, 交友 關係를 함께 검토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가학에서는 전통 유교 학문과 접하며, 사승 관계에서는 전통 성리학의 맥을 잇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만난 교우관계에서는 서양 과학 등 신문물을 접했다.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 동안 접한 전통 유교, 성리학적 수양이 이념적 보수성의 근원이 되었고 서양 과학에 대한 관심은 선비로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애초 그 자신의 학문 목적에 따라 관심을 넓힌 결과였다. 보수적이면서도 과학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은 바로 그의 전기적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이후 한 세기를 지나 東道西器論이라는 구체적 명칭을 가지고 대두한 19세기 한 시대 조류의 한 선례를 발견할 수도 있다(노대환, "19세기 東道西器論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8 참조).

29) 가문에 내려온 덕행과 문장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治人하는 현실에 진출하고자 했던 그의 행적을 말한다.

한 거리를 가진 보수적 사상과 성향을 지닌 인물로 기존 연구에서 논의해 왔다. 황윤석의 시조 작품은 이러한 복합적인 그의 성향을 밝히는 데에 일정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문학의 이해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먼저 그 시조가 가진 교술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 시조의 교술적 성격은 사실을 제시하거나 교훈을 내리는 데서 나타났다.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듯이 시조에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사실을 표현하고자 했다. 君恩을 표현하고 家門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서술의 길을 택했다. 예를 들면 군은을 표현하면서 군주의 은택, 군주의 出生日과 忌日, 벼슬의 제수, 家親과의 死別 등의 실제 사실을 제시했다. 그리고 집안 선대를 자랑하는 과정에 선대 산소의 풍수지리적 빼어남, 선대의 훌륭한 행적, 자기 집안의 발자취, 작가 자신의 출생지와 胎夢, 文章과 行誼를 지켜온 가문의 전통, 집안의 遺訓 등 자기 집안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자랑거리를 객관적으로 진술했다.

다음으로 많은 작품에서 작자 스스로 실천하거나 타인에게 내리고 있는 교훈이 교술적 성격의 또 다른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훈을 내린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스스로의 심성 수양과 관련한 것이 하나이고 당시 보편적 윤리 덕목인 오륜을 교시한 것이 다른 하나이다. 전자에서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선설의 입장, 修己治人の 유교 학문의 목적, 심성을 다스리는 勿忘勿助의 구체적 방법, 성리학에서 본 인간 심성의 특성, 심성 수양의 철저한 실천 등에 대한 교시를 유교 사상이나 성리학의 원론에 충실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교의 보편적 윤리 덕목인 오륜과 관계에서는 먼저 오륜 전체 항목에 대한 교시를 한 수의 작품 안에서 내리고 두 수의 다른 작품을 통하여 이 가운

데 특히 夫婦有別의 덕목을 男女有別에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준수할 것을 엄격하게 교시했다. 작가가 그 주변의 다양한 객관 사실의 전달이나 당시 보편화된 유교 사상과 성리학의 이념, 유교 덕목으로 교훈을 내리는 내용을 작품의 중심 내용으로 표현함으로써 황윤석 시조는 교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작품이 가진 교술적 성격은 작품의 표현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황윤석이 속했던 기호사림의 최선두에 선 인물인 이이의 高山九曲歌가 이념의 형상화를 통한 정서적 감동을 주는 데에 충실했다면 황윤석의 작품은 유교 덕목이나 성리학적 이념을 직설적으로 나타내서 사실과 교훈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르치는 객관적 설명에 치중하고 있는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작품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살폈다. 군은의 표현이나 가문을 자랑하는 작품의 교술적 성격 이면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상승을 지향하는 작가 의식이 내재해 있었다. 그가 죽도록 갇고자 한 군은의 내용이 다른 보편적 작가가 노래한 군은의 내용 즉, 치사한정의 여유나 강호자연의 생활과 달리 황윤석은 벼슬을 받아 현실에 참여하게 된 현상이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시조 작품에 나타난 실생활의 곤궁함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작가가 상승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에 따른 상승 지향적 의식을 가지게 된 경과를 설명해 주었다. 결국 이러한 의식은 그의 한시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가 先山의 風水的 빼어남에서부터 자신의 출생지를 자랑하는데 이르기까지 가문의 자랑 역시 유교적 학문 목적이나 과정으로 보아서 여러 대에 걸쳐 修己의 過程을 충실히 거쳐서 당연히 치인의 지위에 올라야 할 집안임을 은근히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변을 향해서는 차별적 양반 의식을 드러내는 면을 동시에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의 이념 지향 의식이다. 중소토지소유의 향촌사림으로서 점차 한미해져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철저히 이념을 추구하



는 길을 선택했다. 가까운 지역의 비슷한 계층에 속한 위백규가 躬耕讀書하면서 탈주자학적 면모를 보인 것이나 같은 시대 고관을 지낸 이정보, 다음 세대의 이세보가 애정과 풍류적 여유를 노래한 경우와는 달리 황윤석은 유교 전통의 오류이나 성리학적 수양론을 철저히 신봉하고 스승에게 배운 인물성동론이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갔다. 이는 바로 앞 세대의 박인로나 강복중, 바로 다음 세대의 조황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욱 유교 이념을 추구했던 경우와 같은 맥락에 놓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황윤석은 이들보다는 다소 여유 있는 위치에서 전통 유교 이념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 유리하게 견지하거나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황윤석이 가졌던 이와 같은 상승과 이념 지향 의식이 교술성이라는 그 작품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현실적인 思惟의 흐름이 더욱 진전되어 가던 조선후기 사회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승과 이념 지향의 작가 의식을 실효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인적으로 그가 가졌던 우월성의 구체적 사실과 당대 가치를 문학적 형상화의 길을 통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직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상승과 이념 지향 의식의 자연스런 작용으로 상승과 이념의 지향에 필요한 군주나 가문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제시하고, 유교 보편적 실천 덕목과 성리학적 이념의 가르침을 표현한 결과 그의 작품은 교술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학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그의 시조와 시조 한역가, 천 수백수를 헤아리는 한시를 포괄하면서 그의 산문에 散見되는 문학적 입장까지를 고려하여 체계적 연구를 진행해야 그 문학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위백규, 『存齋集』 『存齋全書』  
이 이, 『栗谷集』  
이 황, 『退溪先生文集』  
조 황, 『三竹詞流』  
황윤석, 『頤齋遺稿』 『頤齋續稿』 『頤齋亂稿』  
강혜숙, “이세보 시조의 효용론적 성격-현실비판 시조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제12집, 1996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김명순, “황윤석의 시조 한역의 성격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13집, 1997. 8  
김석희, “「농가」의 본문 비평”, 『고시조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태학사, 1997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2. 2  
김용찬, “「여항육인」의 작품 세계와 18세기 초 시조사의 일국면”, 『시조학논총』 제12집, 1996  
노대환, “19세기 東道西器論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8  
박노준, 『조선 후기 시가의 현실 인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서중문, “박인로 문학세계의 현실적 토대와 세계 인식”,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한길사, 1987  
신연우, 『조선조 사대부 시조문학 연구』, 박이정, 1997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98  
오종일, “한국실학사상과 호남”, 『다산학보』 제8집, 다산학연구원, 1986  
유재영, “이재 화윤석의 목주잡가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7집, 한국언어문학회, 1970. 5  
유재영, “이재유고를 읽고”, 『춘강수록』, 이회문화사, 1992.  
유재영, “이재의 타어부에 대한 고찰”, 『향토문화연구』 제5집,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89  
이강오, “이재 황윤석”, 『실학논총』,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75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이형성, “이재 황윤석의 ‘수’에 기초한 실학사상 일고”, 『한국사상과 문화』 제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전재강, “노계 <요륜가>의 당위적 지향과 현실적 표현 양상”, 『문학과 언어』 제10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9

- 전재강, "도산십이곡의 이기론적 근거와 내적 질서 연구", 『어문학』 제70집, 한국어 문학회, 2000. 6
- 전재강, "고산구곡가의 충담소산과 이기묘적·주성적 성격", 『안동어문학』 제6집, 안동어문학회, 2001. 11
-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 제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 정홍모, "19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주요작가의 의식지향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94
- 최강현, "황윤석론", 『속·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편, 백산출판사, 1990
- 최삼룡 외 4인 공저, 『이재 황윤석』, 민음사, 1994
- 하성래, "이재 황윤석의 서양 과학사상 수용-담헌 홍대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제1집, 명지대 전통문화연구소, 1983
- 황충기, "정조·순조대의 평민시조-「악학습령」과 육당본「청구영언」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8집, 한국시조학회, 1992

〈Abstract〉

A study of the didactic character of Huang Yunseok's sijo  
and it's implications for his poetic intentions.

Jeon Jae-Ga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Huang Yunseok's sijo and it's implications for his poetic intentions.

Huang Yunseok's sijo is didactic in its presentation of facts and ethical lessons. The two main facts it presents are royal favors and his clan's pride. Royal favors concern, for example, encouragement of the king, the king's birthday and deathday, and securing a government position by the king's order. His clan's pride concerns, for example,

the geographically wonderful place of Huang Yunseok's ancestor's tomb, his ancestor's great conduct, his clan's beautiful tradition, his birth place, and his birth dream. The main content of the ethical lessons concerns cultivation of the human mind and practicing Confucian ethics. Examples of the former describe the purpose of Confucian study, the ethical doctrine that human being's inborn nature is good, the character of the human mind, and the method of cultivating the human mind. Examples of the latter describe the moral rules to govern the Five Human Relations, separ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discrimination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 poetic intention of Huang Yunseok's *sijo* consists of political and economic self-promotion and theoretical devotion to Confucian ideology. Proud of his educated, high Confucian clan, he tries to get self-promotio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by vowing loyalty to the king. He implies devotion to the Confucian ideology through his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f the Confucian moral rules, the clinging to traditional Neo-Confucianism, and his insistence on the Neo-Confucian theory that all human beings and animals are the same in their original nature.

In conclusion, the didactic character of Huang Yunseok's *sijo* stems from his intention to promote himself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his theoretical devotion to Confucian ideology. The way of indicative expression originates from the didactic character of Huang Yunseok's *sijo*.

*Keywords* : Huang Yunseok, Didactic character, Implication, Confucian ideology, *Sijo*.